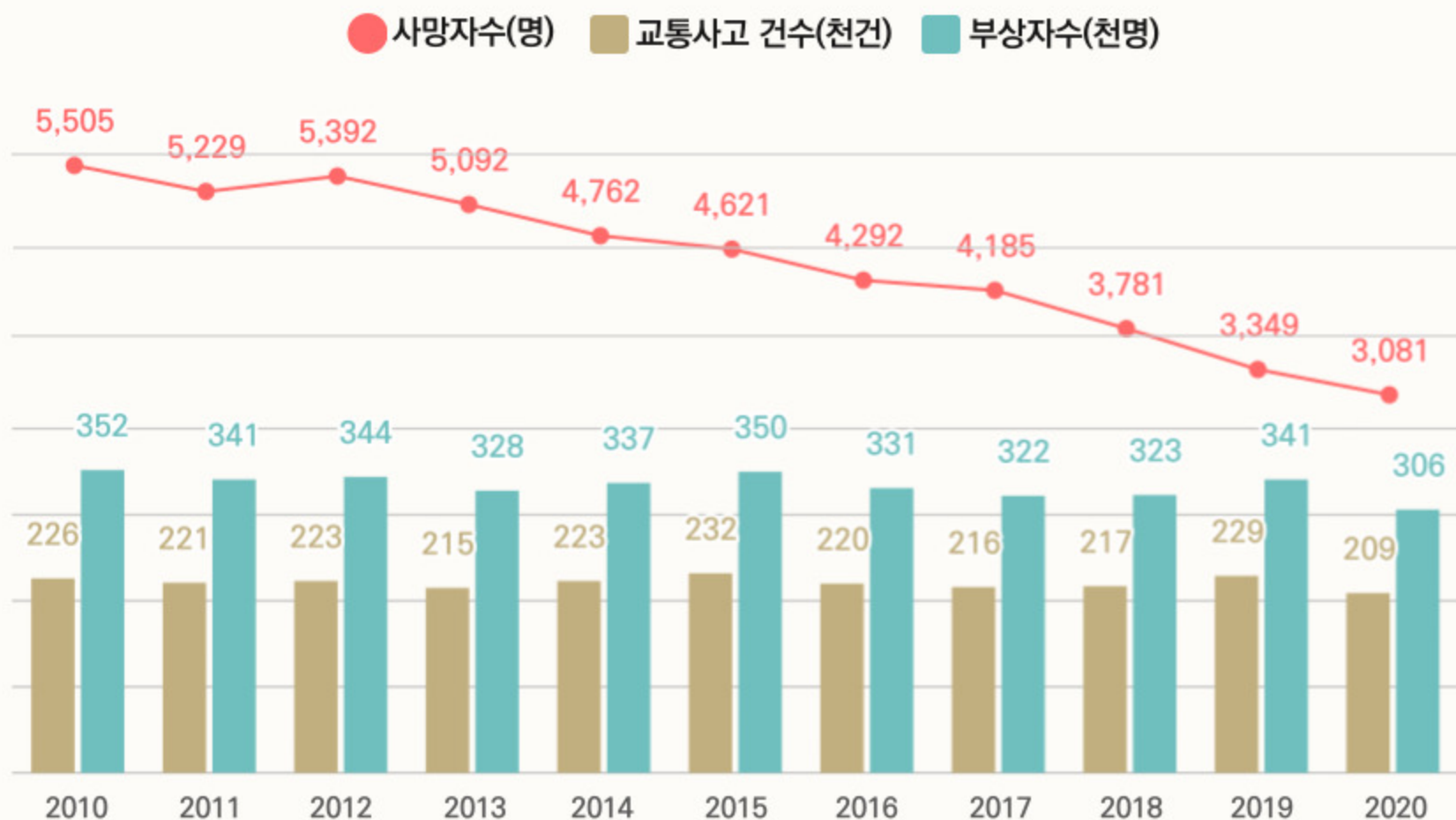


교통사고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도로안전



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
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,
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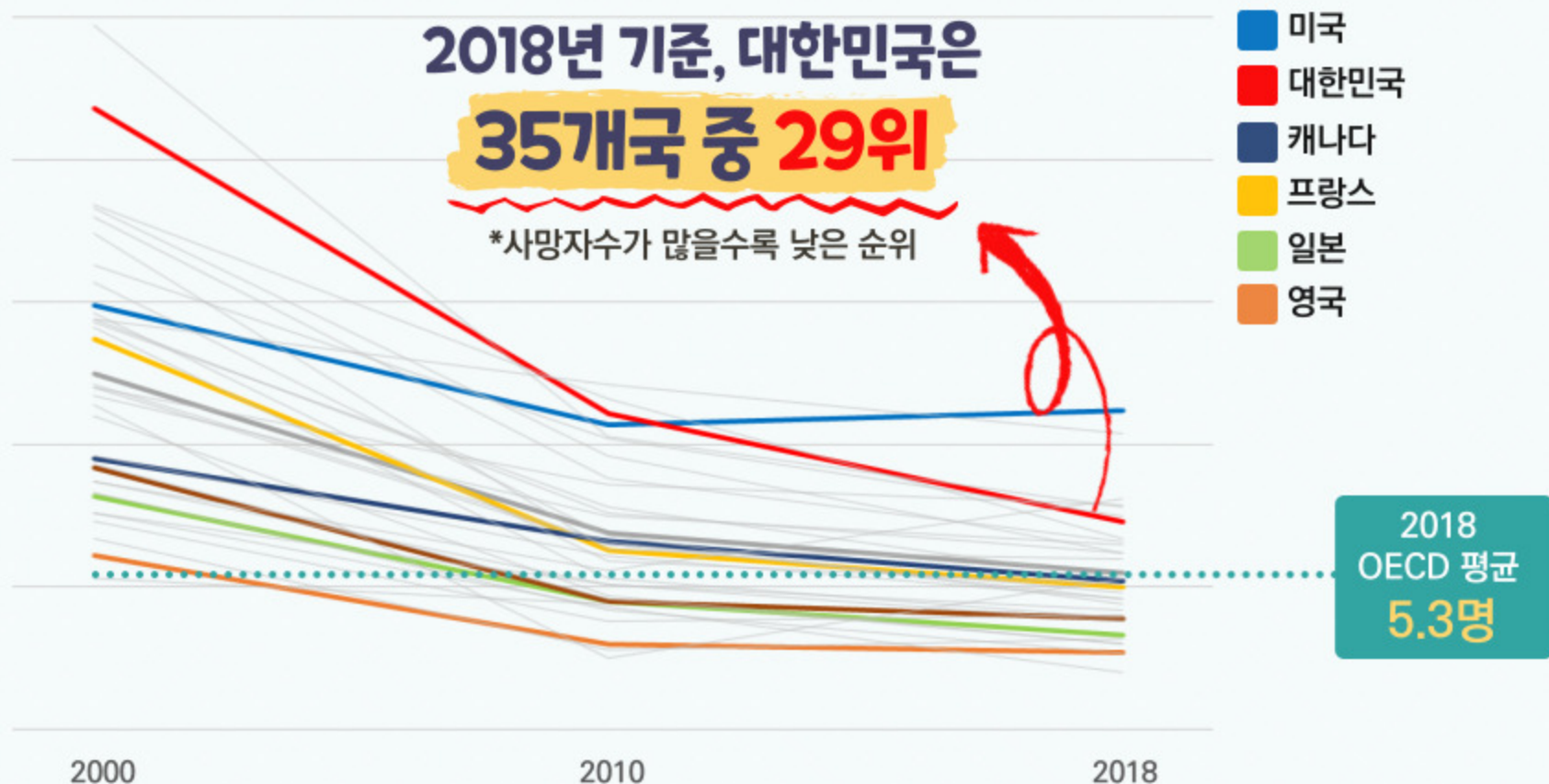
도로 교통사고 추세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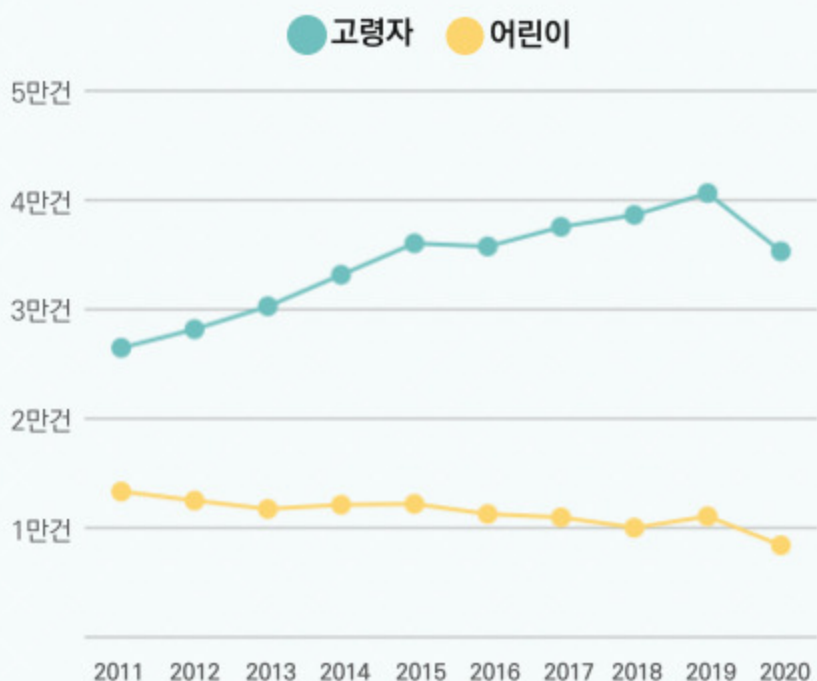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, 2000년 이후 감소율은 1위이나 2018년 기준 OECD 평균 5.3명 보다 다소 높은 **7.3명**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

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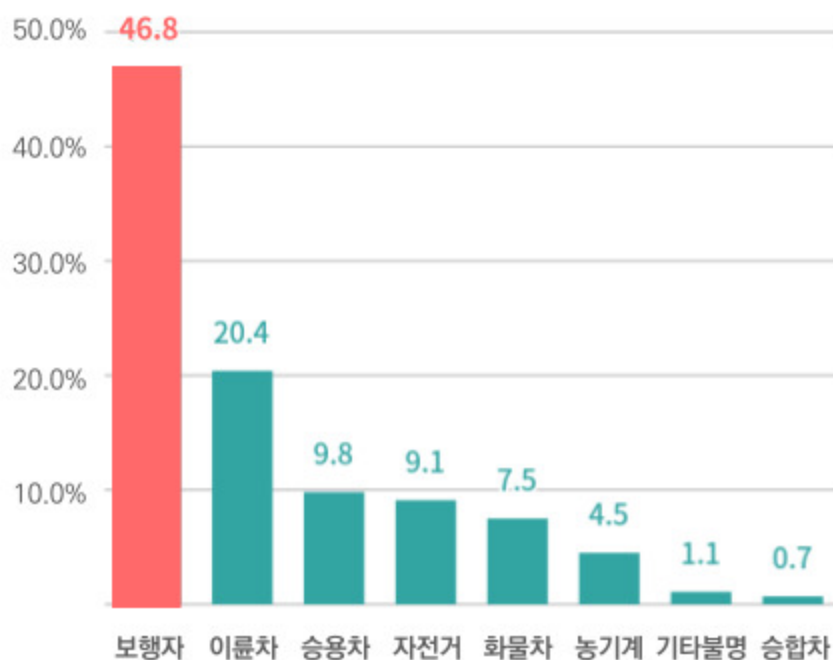


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
어린이 (12세 이하)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씩 **감소**하는 추세이고,
고령자 (65세 이상)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까지 **증가** 추세였으나,
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.

교통사고 취약계층 교통사고 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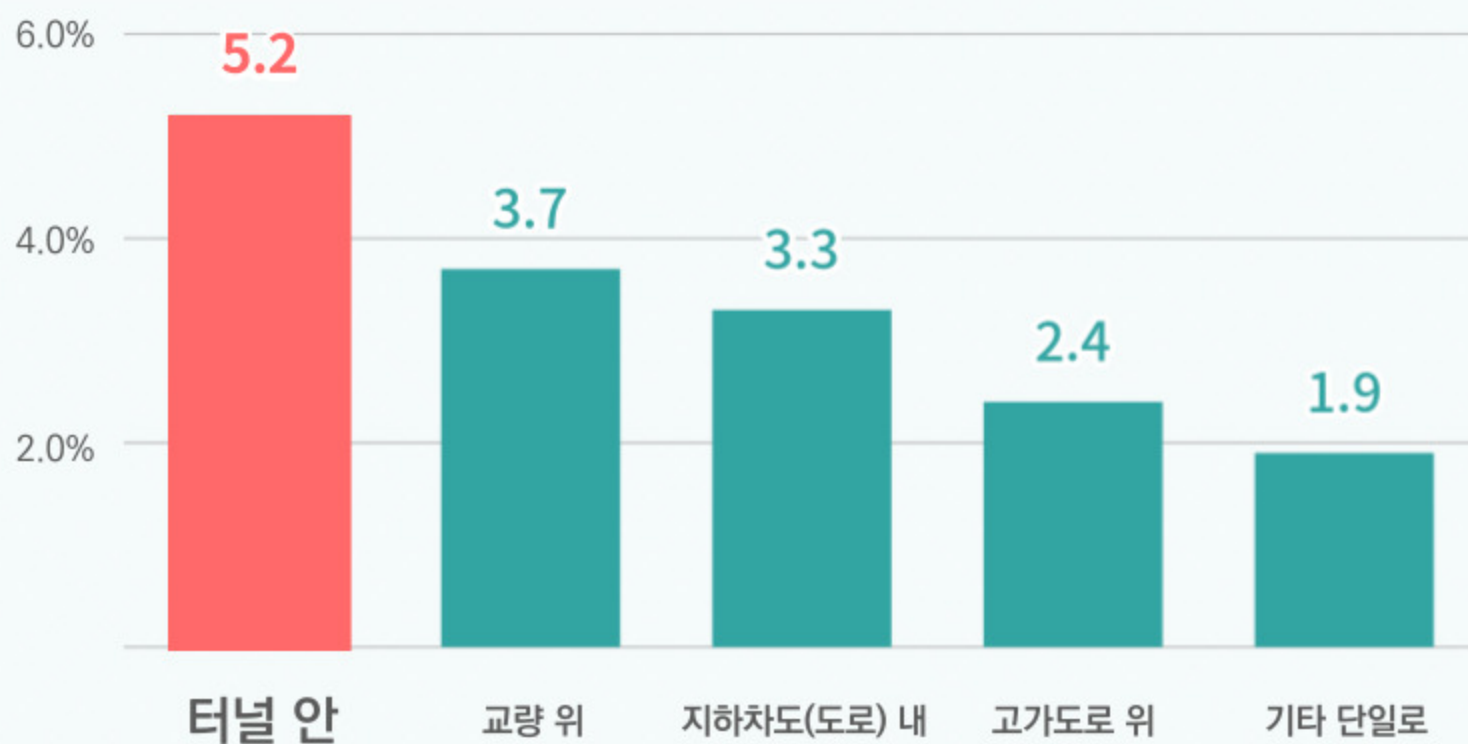
2020년 고령자사고 승차차종별 사망자 구성비



2020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,
 고령 **보행자**의 사망비율이
46.8%로 가장 높습니다.



2020년 기준, 단일도로의 경우
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
5.2%의 가장 높은
치사율을 보였습니다.



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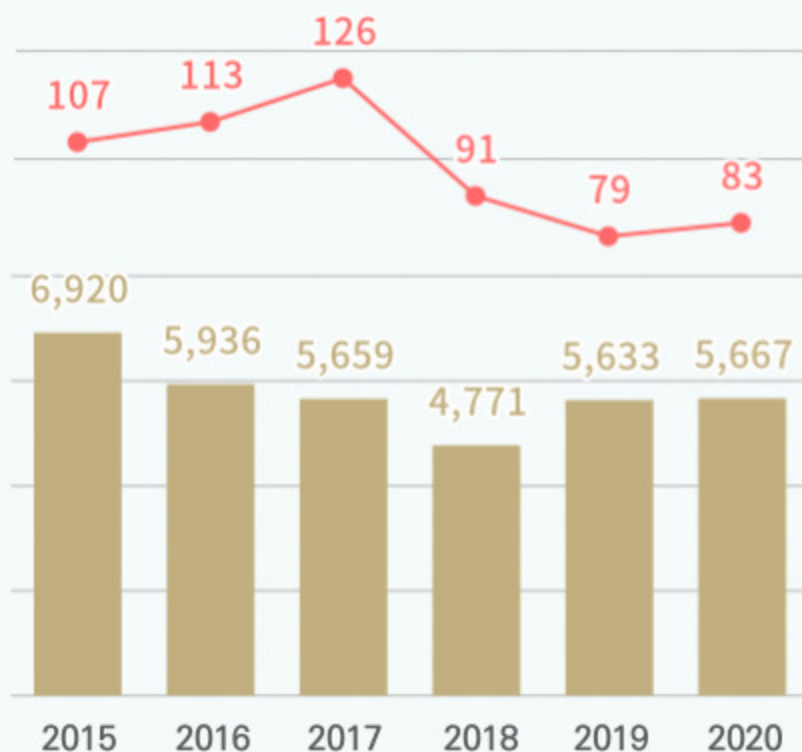


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
조금씩 **감소**하는 추세이나,
PM* 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) 의
사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
관련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**증가**하는 추세입니다.

*PM(Personal Mobil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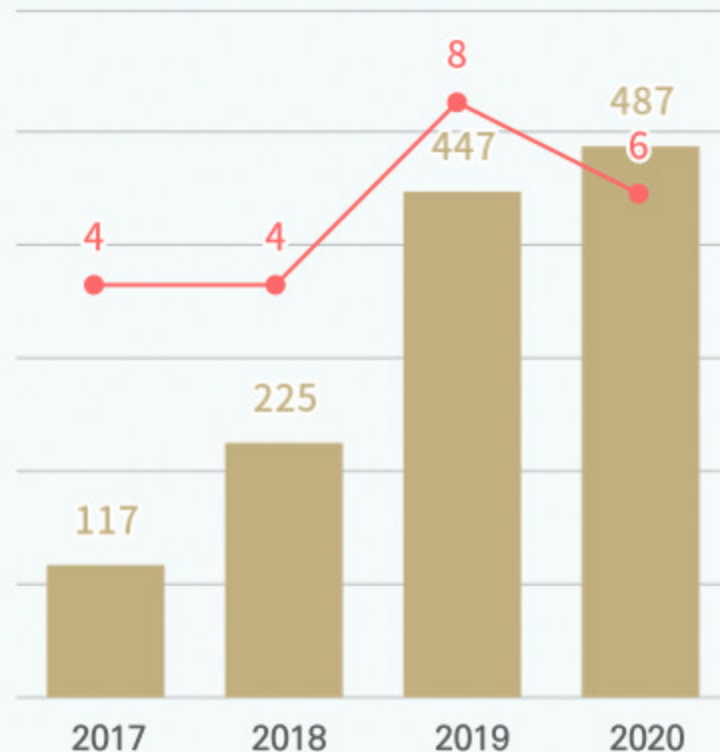
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

■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(건) ●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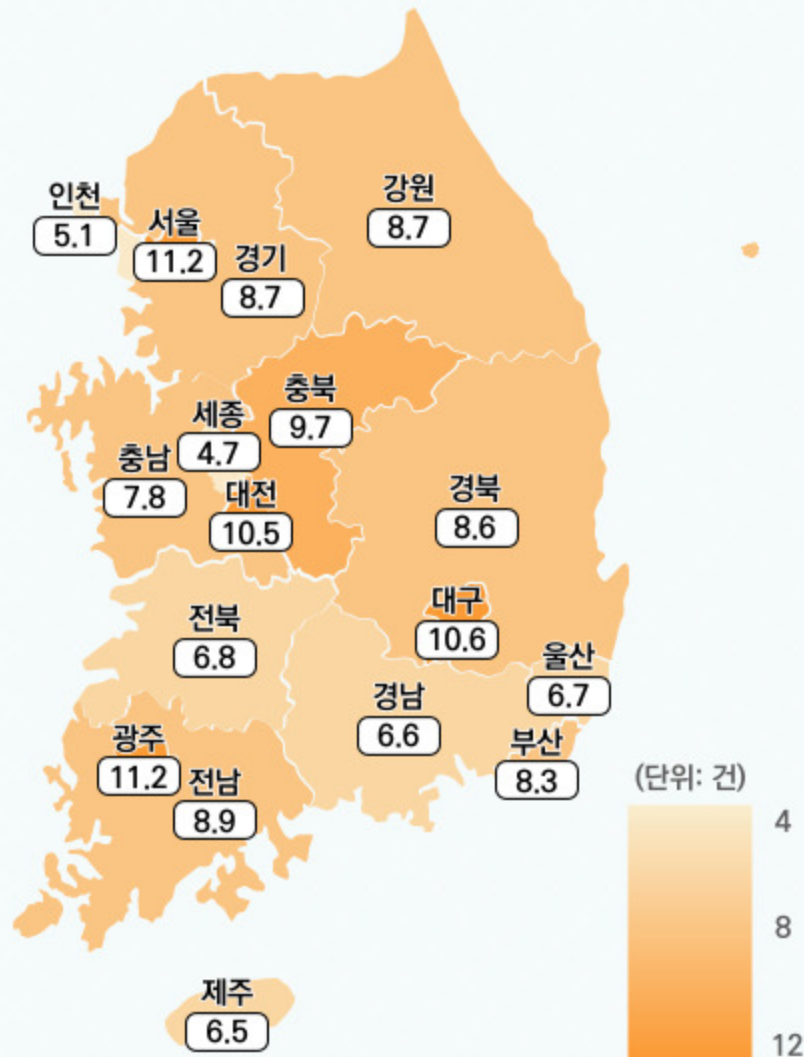


PM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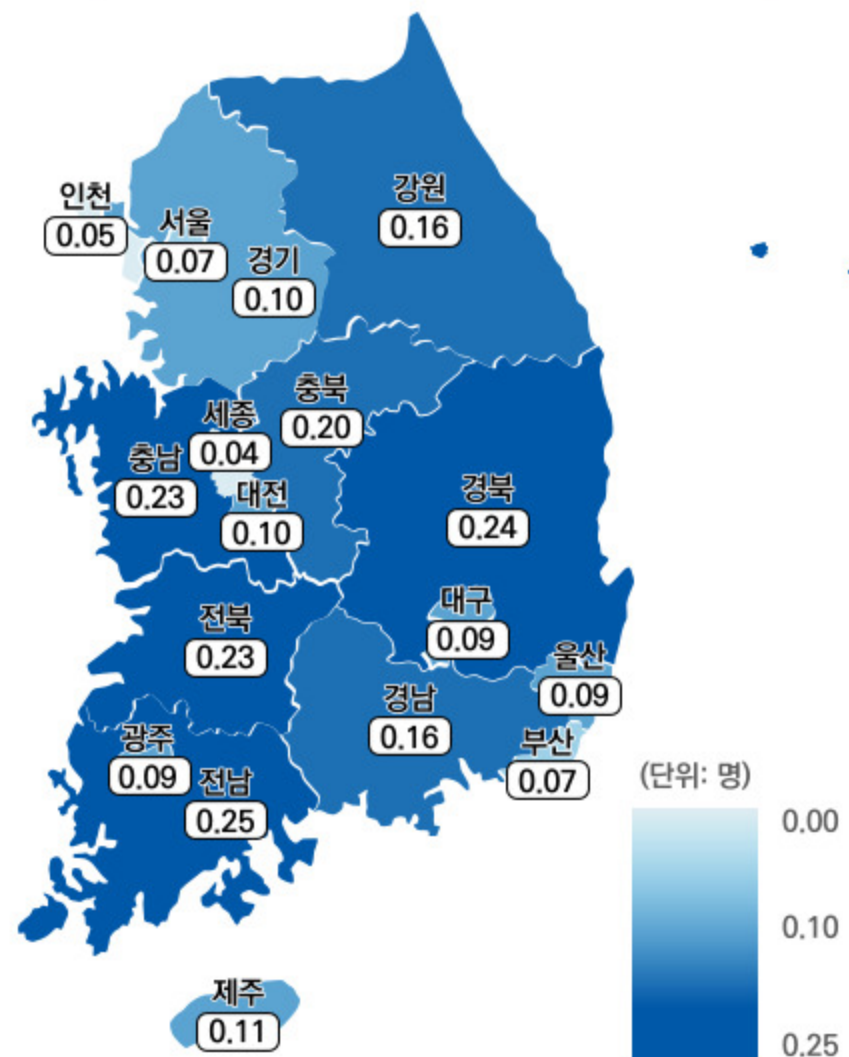
■ PM 교통사고 건수(건) ● PM 교통사고 사망자수(명)



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



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



2020년 기준 지역별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,
전국 평균 8.3건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광주가 **11.2건**으로 가장 높았고
 세종이 **4.7건**으로 가장 낮았습니다.

한편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**전국 평균 0.13명**을 기록했으며,
 전남이 **0.25명**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**0.04명**으로 가장 낮았습니다.

우리나라는 국토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
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,
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 수준입니다.

특히 고령자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위한
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

**앞으로 정책적·기술적 노력을 통해
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**



KRIHS  국토연구원